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감독.



손혁 키움 히어로즈 감독.



허문회 롯데 자이언츠 감독.

감독의 시간... 프로야구 새 사령탑 '4인 4색'

KIA 윌리엄스 "강한 멘탈"... 삼성 허삼영 "멀티 포지션" 키움 손혁 "최강 투수진"... 롯데 허문회 "포지션 플레톤"

이제 감독의 시간이 시작된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2월 1일 미국, 호주, 대만, 일본에서 일제히 전지훈련 막을 올린다. 3월 초까지 40일 남짓한 기간에 각 구단은 올해 주전 라인업과 선발 투수진의 윤곽을 결정한다. 귀국 후 시범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전력을 점검한다.

수코치에서 키움의 새 선장이 된 손혁 감독이 주인공이다. 네 감독의 색깔은 확연하게 갈린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이거즈 군단에 걸맞은 호랑이 인상으로 강렬함을 뽐냈다. KIA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 선수 54명, 감독과 코치진 20명 등 74명의 매머드 선수단을 보낸다.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선수 실력을 확인해 주전으로 선발하라는 취지에서다. 통산 11차례나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KIA는 윌리엄스 감독이 전파할 메이저리그식 문화와 양상질을 한껏 기대한다.

한 우물을 판 전문가다. 허 감독은 작년 11월 취임식에서 "원칙을 지키는 야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야구"를 강조했다. 특히 주전과 비주전을 가리지 않는 멀티 포지션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감독은 "훈련량이 많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구단의 권유 또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데이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감독이 사실상 처음으로 KBO리그에 출현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질 모두 상대 팀을 압도하는 별패 작전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신인 마무리 하재훈을 정점으로 서진용, 김태훈으로 이뤄진 막강 불펜을 앞세워 성공 경험도 쌓았다. 공격력은 리그 정상을 다투는 만큼 투수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첫 우승에 도전하는 키움의 열쇠다. 허문회 감독은 선수와 같은 길을 바라보고 함께 행동하는 '동반자'란 말을 강조했다. 개성 넘치는 롯데 선수단을 하나로 묶을 허 감독의 리더십과 인화를 앞세운 용병술에 많은 시선이 쏠린다. 허 감독은 '시즌 내내 경쟁'을 팀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내세웠다.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고 자 포지션별로 2명씩 플레톤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경쟁으로 생기는 시너지 효과와 안정적인 팀 운용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산과 맞닿는다.

지난 시즌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감독은 모두 4명.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에 워싱턴 내셔널스 사령탑을 지낸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 전력분석팀장에서 일약 감독으로 변신한 허삼영 삼성 감독, 키움 히어로즈의 수석코치에서 롯데 자이언츠 감독으로 영전한 허문회 감독, 그리고 SK 와이번스 투

수코치에서 키움의 새 선장이 된 손혁 감독이 주인공이다. 네 감독의 색깔은 확연하게 갈린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이거즈 군단에 걸맞은 호랑이 인상으로 강렬함을 뽐냈다. KIA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 선수 54명, 감독과 코치진 20명 등 74명의 매머드 선수단을 보낸다.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선수 실력을 확인해 주전으로 선발하라는 취지에서다. 통산 11차례나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KIA는 윌리엄스 감독이 전파할 메이저리그식 문화와 양상질을 한껏 기대한다.

손혁 감독과 허문회 감독은 히어로즈라는 한 뿌리에서 코치로 지도자 이력을 쌓았다. 전공에 따라 손 감독은 투수, 허 감독은 타격에 일가견이 있다. 소동 능력도 뛰어나다. 손 감독은 "최대한 강한 투수진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키움 마운드는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양과

질 모두 상대 팀을 압도하는 별패 작전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신인 마무리 하재훈을 정점으로 서진용, 김태훈으로 이뤄진 막강 불펜을 앞세워 성공 경험도 쌓았다. 공격력은 리그 정상을 다투는 만큼 투수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첫 우승에 도전하는 키움의 열쇠다. 허문회 감독은 선수와 같은 길을 바라보고 함께 행동하는 '동반자'란 말을 강조했다. 개성 넘치는 롯데 선수단을 하나로 묶을 허 감독의 리더십과 인화를 앞세운 용병술에 많은 시선이 쏠린다. 허 감독은 '시즌 내내 경쟁'을 팀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내세웠다.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고 자 포지션별로 2명씩 플레톤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경쟁으로 생기는 시너지 효과와 안정적인 팀 운용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산과 맞닿는다.

바둑 농심배 중국 일정 신종 코로나 여파 5월로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한·중·일 바둑 삼국지'로 불리우는 농심신라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 라운드 대결도 미뤄졌다.

한국기원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1회 농심배 본선 3차전을 5월 5~9일로 연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본선 3차전 개최 장소는 지난해까지 3차전이 열렸던 상하이 그랜드센트럴호텔이 유력하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쳐 장소를 변경할 계획이다.



NBA '전설' 브라이언트 추모 팬들 미국프로농구(NBA)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등 9명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다음 날인 2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 밖에 팬들이 모여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가운데 꽃과 초, 풍선 등이 놓여 있다.

"한국, 도쿄올림픽 남자축구·여자골프 등서 금메달 예상"

미국 스포츠데이터업체 한국 금메달 9개 획득 전망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패거리를 이룬 '김학범호'가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 데이터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회사 그레이스노트가 지난주 발표한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9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해 금메달 수 기준 종합 10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확정된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다. 올림픽 본선 진출국이 확정된 뒤인 다음 전망치에서 업데이트된 분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박인비가 금메달을 따낸 여자 골프에서는 고진영이 금메달, 박성현이 은메달을 휩쓸 것으로 예상됐다. 또 양궁에서는 리커브 혼성과 여자 단체전, 여자 개인전 강재영이 금메달을 수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으며 태권도에서는 이대훈과 장준이 '금빛 발차기'를 할 것으로 기대됐다. 펜싱에서는 남자 사브르 개인전 오상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이 예상된다.

그레이스노트가 전 종목에 걸쳐 최근 국제 대회 성적 등을 반영해 예상한 도쿄올림픽 세부 종목별 메달 후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양궁과 태권도, 축구, 골프, 펜싱 등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은메달 11개는 야구와 여자골프 박성현 외에 양궁 남자 개인전 김우진, 남자 단체전, 유도 조구함, 사격 임하나, 탁구 남자 단체전, 태권도 이아름, 심재영, 인교돈, 레슬링 김현우가 따낸다는 것이 그레이스노트의 전망이다.

동메달 6개는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 유도 안창림, 사격 진종오, 태권도 이다빈, 레슬링 김승학, 류한수가 후보로 지목됐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지난 28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20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남자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B 대회 1차전에서 네덜란드를 5-1로 완파하고 승점 3을 따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제공

한국 U20 아이스하키 네덜란드에 5-1 완승 김재석·효석 쌍둥이 득점포... 29일 벨기에와 2차전

한국 남자 20세 이하(U20)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에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20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남자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B

대회 1차전에서 네덜란드를 5-1로 완파하고 승점 3을 따냈다. 연세대의 쌍둥이 형제인 김재석과 김효석이 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골을 터트리며 승리를 견인했다. 한국은 29일 오후 8시 벨기에와 2차전을 치른다.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공지능 기술보유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